

研究論文

카작스탄 고려인 관련 영상물에서 나타난 고려인 주요인사 및 민족문화 관련 기관의 활동

김 상 철*

I. 서론	III. 주요 민족문화기관들의 활동
II. 카작스탄 고려인 사회의 주요인사	IV. 결론

I. 서론

1937년 강제이주를 기점으로 그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가 한인동포(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40 주년 전체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간과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러시아 고려인 사회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은 이미 관련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한국의 시각은 여전히 고려인의 첫 번째 역사적인 고향인 연해주에 집중되고 있다. 2)

* 카작스탄 알파라비 국립대 한국학과 부교수, 인문학 전공.

1)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가 재외동포재단의 위탁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참고해보면,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와 러시아 고려인 사회의 형성시기에는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고려인의 문화적인 특성 역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이후 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1937년 강제이주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고려인의 언어변천에 대한 연구가 일부 러시아 언어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며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연구진들에 의해 유럽러시아, 시베리아지역으로 까지 연구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고려인의 이주 대안

현재의 러시아 고려인 사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연해주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간과될 수 없지만, 그 변천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러시아 고려인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노년층은 대부분이 연해주에서 출생하였다. 반면 장년층 이하의 세대 대부분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후 출생하였고, 이들 세대들에게는 연해주는 조상이나 부모세대의 고향일 뿐 자신들의 고향은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고려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소개도 요구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시기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 대한 이해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시기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강제이주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일부 연구를 중심으로 소련시기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문화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인에 대한 연구에서 그 동안에는 주요 연구방법으로 온 문헌 및 문서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고려인의 삶을 연구자의 시각에 의해 선택된 추상적인 언어의 형태로 압축하여 전달함에 따라 역사적 사실 및 문화변화 등에 대한 서술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이 아닌 일반인에게 이러한 연구 성과가 공유되기도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방송사에 의해 고려인과 관련되는 다큐멘터리가 수차례 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정확한 현실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고려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막연히 ‘어렵게 살고 있는 한인(韓人)동포’라는 식으

으로써 연해주의 부적절성이 CIS 각 지역의 고려인 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고, 연해주 이주에 대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달갑지 않은 시각은 수차례 한국의 관련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인식과 여론은 ‘불쌍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대안은 연해주 정착이며, 적극적으로 한국이 지원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들을 한국의 단체(주로 고려인 관련 NGO)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여론화하고 있다. 결국 전체 CIS 고려인 가운데 20% 미만이 거주하는 연해주의 상황이 나머지 80%가 거주하고 있는 CIS 여타 지역의 고려인 사회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연해주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고려인 사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한·러 의원협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해주로의 집중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더 심화되고 있다.

로 귀결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의 일반화에도 기여를 하였다.³⁾

최근의 고려인 관련연구들은 성공적인 현지 사회 정착 민족으로서 고려인을 부각시키고 있고, 현지에서 행해진 고려인 관련 연구들도 변화하는 고려인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보편적인 의사소통체계가 문자가 아니라 말 중심이었다는 측면, 소련체제 70년간 확립된 문서중심의 책임규명 문화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문헌 중심, 설문지 및 인터뷰를 이용한 연구로는 고려인의 삶과 문화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본 연구자는 실감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연구 성과들이 러시아어로 발표되는 점 역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한국의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의 측면에서 일종의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고려인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제작된 영상물들은 러시아어로 제작되어 언어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영상을 통하더라도 사실(史實)의 전달 및 활용, 내용 이해 측면에서 문자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달효과를 가지고 있다.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카작스탄에서 제작된 고려인 관련 영상자료들 가운데 특히 고려인의 민족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고려인 사회의 위인 및 주요 민족문화 관련기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회 변화의 역사를 영상을 통해 접근하였다.⁵⁾

3) 단적인 예가 ‘한민족 리포트’에서 방영된 고려인 관련 프로들이다. 이러한 프로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구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민족의 문화, 정신, 말들을 지켜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다. 이 프로들을 통해 소개된 분들의 활동이 훌륭하다는 점에는 본 연구자도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분들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제시되는 배경의 대부분은 고려인이 현지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식이었다. 제작진들이 좀 더 학문적인 성과물들을 성실히 읽어보고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조금이라도 의견 개진을 했더라면 단순한 감성을 자극하는 구도의 영상물보다는 고려인의 역사, 그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자랑스러운 한민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4) 카작국립영상물 보관소 소장 고려인 관련 영상물들의 복사물이 국사편찬위원회에 납품되어서 국내의 관련연구자들도 조만간 직접 이 영상물들을 접할 수 있다. 이 영상물들이 소련시기의 선전물이라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물이 고려인 이외의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선동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상 자체에서는 선전 및 선동적인 요소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당시 고려인들의 사회활동, 삶의 모습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측면을 본 연구자는 더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 영상물 수집 조사과정에서 현지 고려인 사회에서 조차 이러한 영상물들이 제작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5) 본 연구자는 카작스탄의 고려인 관련된 영상물 발굴 상황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고려인 관련 영상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상철 「카작스탄 영상 매

영상기록물을 통해 카작 고려인 사회의 변천사를 소개하는 본 연구는 연구의 방법으로 관련 영상기록물에서 나타나는 주요 인사들을 주요 분야별로 소개하고, 영상물을 통해 나타나는 민족문화 관련기관들의 활동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영상기록물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배경 및 개괄적인 이해는 기존의 문헌 중심 연구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였고, 영상물의 제작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영상물은 카작스탄 국립 영상, 사진 및 음성기록 보관소 소장 영상물, 카작스탄의 국영 및 민영 방송국에서 1990년대 이후 제작된 고려인 관련 영상물들이다. 1990년대 이전에 제작된 영상기록물들은 국립 영상, 사진 및 음성 기록물 보관소에서 입수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1934년부터 카작 국영필름에 의해 매주 제작되어 카작스탄 전역으로 배포되었던 주간 영상물 ‘소비에트 카작스탄’의 일부분으로 제작되었던 것들이다.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기록물들은 아직까지 국립 영상, 사진 및 음성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되지 않은 관계로 카작국영방송 및 민영방송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인 관련 영상물로 한정하였으며, 1991년부터 카작국영TV의 소수민족 방송의 일환으로 제작·방송된 영상물도 참고하였다.

II. 카작스탄 고려인 사회의 주요인사

1. 농업분야

고려인과 관련된 영상물들은 1939년 최초로 제작되었고, 1940~60년대가 본격적으로 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소련에서 대중전달매체로 영화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1940년대에 나온 영상물은 고려인이 벼농사에서 거둔 성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물의 제작배경은 1929년부터 실시된 강제 집단화가 초래한 카작스탄 기존 농업기반의 붕괴와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

체에서 나타난 고려인(韓人) 역사와 이미지, 『국제지역연구』 7 권 3 호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3).

가 있다. 토착민족인 카작인들이 집단화를 거부하여 카작스탄을 떠남으로 인한 대규모 유목민 인구의 유출, 1930년대 초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자의 발생 등이 원인이 되어 카작민족의 인구는 소련체제 출범초기와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이상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업기반의 붕괴, 농업인구의 공백은 고려인을 포함한 강제이주민들로 대체되었다.⁶⁾

고려인의 대부분은 집단화과정에 의해 기반이 붕괴되어 버린 농촌지역이나 기촌에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이주 되었다.⁷⁾ 곡물농사에는 부적합한 지역에 대부분 정착한 고려인들은 벼농사 재배를 위한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강제이주에서부터 채 2년이 안 되는 시점부터 벼농사에 성공하였다.⁸⁾ 소련 중앙정부 및 카작공화국의 입장에서 이는 강제이주 민족의 성공적인 정착사례라는 측면과 농촌지역 집단화로 인한 생산 증대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게 되었다. 아울러 1941년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 참전하게 되면서 전시 총력생산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고려인들이 벼농사에서 세계기록 차원의 쌀을 생산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군수물자 구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⁹⁾ 소련중앙정부나 카작공

- 6) 소련체제 출범당시 카작공화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작인의 숫자는 대략 300만 명 수준이었는데, 1939년에 이는 거의 15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유목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1929년 120만호가 넘었던 농가는 1934년에 57만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Olcott, Martha Brill, *The Kazakh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pp. 181~184.
- 7) 카작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지역별 정착 숫자는 남카작스탄 지역에 약 8,700가구, 북카작스탄지역에 5,100여 가구, 서카작스탄지역에 1,300여 가구가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수치는 관련문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ГАРФ. Ф. Р-5546. Оп. 1. Д. 57. Л. 121.
- 8) 이외에도 러시아 아조프해에 면한 아스트라한 감자토프 지역(당시는 스탈린그라드주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아스트라한주에 포함됨), 카작스탄의 발하쉬 호수에 면한 발하쉬 지역, 카스피해 연안의 구리예프(현재명 아티라우)지역에는 극동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되었다. Пак Б. Д. *Бугай Н 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4, с.265.*
- 9) 카작스탄 우슈토베 카라탈구역 ‘달리보스톡(극동)’ 집단농장의 신행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방위성금으로 12만 루블을 납부했고, 카작스탄 크즐오르다의 볼세미키 집단농장 역시 35만 루블의 방위성금과 10만5천 루블의 방위채권을 구입하고 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물품을 방위품으로 납부하였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한인 집단농장들에서도 1943년 방위성금으로 700만 루블을 납부하였다. 김승화(저)/정태수(역), 『소련한족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232~240쪽.

화국은 전시체제에서 제 집단들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고려인 집단농장의 성공 사례를 널리 선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에는 크즐오르다의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이 빈번히 소개되고 있으며, 1960년에는 역시 같은 크즐오르다 지역에 위치한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이 소개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려인의 모습을 다룬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1946년 제작된 ‘크즐오르다주 칠린구역 고려사람(韓人) 집단농장 아방가르드 선봉) 특집’은 1940년대의 고려인을 다룬 가장 대표적인 영상물로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특집 영상물이다. 이 시기 고려인과 관련된 영상물이나 아방가르드 농장을 다룬 다른 영상물은 대부분 1~2분 정도의 짤막한 소식 전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방가르드 농장 특집편은 30분 정도 길이로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농사, 집단농장의 설립 및 변천사, 집단농장내의 한국어 중등학교, 농장장 김만삼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벼농사 과정, 현지의 카작인과 협동작업을 하고 있는 농장 가축작업반, 수확된 벼의 국가납부 장면, 집단농장의 전체 총회 모습, 집단농장에서의 여가생활, 가을걷이 후의 결혼식 및 축제, 가을걷이 축제에 출연한 탈디쿠르간 주립 고려극장 공연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1940년대에 활성화된 고려인집단농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⁰⁾ 이외에도 아방가르드 집단농장과 김만삼에 대해서는 수차례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42년으로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벼 추수, 벼농사전문가 김만삼(1942)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1948년에는 아방가르드 농장 도정공장 및 문화회관 건설을 소개하고 있다.

크즐오르다에서 벼농사를 하는 고려인 집단농장들이 4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배경으로는 거의 황무지이다시피 했던 지역에서 벼농사를 성공시킨 점, 1930년대 초반의 강제집산화로 인한 이 지역에서의 농업생산 및 인구의 공백을 메우고 카작스탄 벼농사의 중심지대로 변모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이 지

10) 아방가르드 농장은 벼농사 전문가인 김만삼의 지도아래 1942년 쌀 수확에서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헥타르 당 15톤 이상을 수확하는 등, 높은 수확고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벼농사에 있어서 아방가르드 농장의 놀라운 성과로 소비에트 정부는 1946년 농장장인 김만삼에게 국가장려금을 수여하였고, 1948년에는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역에서 벼농사 중심인 고려인 집단농장인 아방가르드, 제3인터내셔널 기간트, 카작스탄 설립 18년명칭 콜호즈가 주로 영상물의 촬영 대상이 되었다.¹¹⁾

1952년에는 카작스탄 서북부 밀농사 지대인 쿠스타나이주(州)에서 공동농장 농장장을 맡고 있는 고려인 노동영웅 박알렉산드르 알렉산드르비치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이 영상물은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약 4,000명의 고려인이 강제이주된 이 지역에서 밀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강제이주 당시 곡물농사지대로 이주된 고려인들은 벼농사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주된 지역에서 특화된 기존의 농업체계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박알렉산드르와 관련된 영상물은 1957년 1963년에 다시 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이후에는 크즐오르다의 칠리구역에 위치한 아방가르드 집단농장 대신 크즐오르다 카라막치 구역에 위치한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에 대한 영상물이 빈번히 제작되었다.¹²⁾ 대표적으로 1957년에 제작된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 채 정확’편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벼농사 중심 고려인 집단농장 가운데 하나인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의 농장장인 채정학을 소개한 영상물이다 1960년대에도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에 대한 영상물이 세 차례 더 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집단농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농업 전문직 고려인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11) 1937~1970년 사이의 카작스탄에서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고려인은 잠불주 3명, 크즐오르다주 32명, 쿠스타나이주 1명, 탈디쿠르간주 26명, 침켄트주 4명, 첼리노그라드주 1명이다. 즉 전체 고려인 노동영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크즐오르다에서 나왔다.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казахстанцы,” Алма-Ата т.2 с.407, 712~716, 606~707, т.3 с.207, т.4 с. 227~228, 213, 417, 569, 607, 709, 720~726; Ким, Г.Н. М ен Д.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Гылым, 1995, с.206~207에서 재인용.

12) 아방가르드 콜호즈는 크즐오르다시에서 남쪽으로 140킬로미터 떨어진 칠리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는 크즐오르다시에서 북쪽으로 200킬로미터 떨어진 카라막치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도 아방가르드 콜호즈는 접근이 자유로운 반면, 제3 인터내셔널 콜호즈는 카라막치 구역 내에 바이코누르 우주발사기지가 있어,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연구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표 1> 농업분야 관련 영상물 목록

제작년도	대상지	내 용	특 징
1942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벼 수확과 김만삼	최초 소개 영상물
1946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선봉) 집단농장	20분 정도로 특집편
1948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벼 수확과 김만삼	
1948	카작스탄 알마티	아방가르드 집단농장 농업영웅 김만삼이 알마티의 농업성과보고대회 참석	1948년 카작스탄 농업보고자대회 참석
1949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 농장 문화회관 건설	
1950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 농장, 벼농사전문가, 사회주의 노동영웅 김만삼	김만삼의 2차 서훈
1952	카작스탄 쿠스타나이	공동농장장 박알렉세이 A.	농사준비 소개
1957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 채정학	농장 및 농장장 소개
1957	카작스탄 쿠스타나이	공동농장장 박 알렉세이 A.	젊은이들과의 대화/ 농사 성과 소개
1958	카작스탄 탈디쿠르간	옥수수 재배 전문가 강주현	옥수수 재배에 관한 강연 모습
1959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벼농사 전문가, 노동영웅 김만삼	1950년대 모습 소개
1960	카작스탄 탈디쿠르간	달리보스톡 농장장 사회주의 노동영웅 신형문	우슈토베의 농업지도자 신형문 및 활동 소개
1960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기간트 콜호즈와 농장장 김 E.	
1962	카작스탄 첼리노그라드	카작스탄 설립 18년 명칭 집단농장 농장장 박대환	밀 농사지역 고려인
1963	카작스탄 침켄트주	공산주의의 서광 집단농장 기계작업반 반장 이. N.	남부 벼농사지대
1963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 농업지도원 김승학	
1963	카작스탄 쿠스타나이	첼린의 집단농장 전 농장장 박알렉세이 안드레이비치	밀 농사지역 고려인 농업 영웅
1965	카작스탄 첼리노그라드	유가공 공장 수석 엔지니어 최유리 알렉세예비치	유가공 공정개선 활동 소개
1970	카작스탄 탈디쿠르간	10월혁명 40주년 콜호즈 농사전문가 전영화	우슈토베
1970	카작스탄 알마티	농업과학자 황 A. I.	
1981	카작스탄 탈디쿠르간	우슈토베 및 탈디쿠르간지역 쌀 생산자 회의	우슈토베 고려인 벼농사 종사자 총회

1960년에는 크즐오르다 지역과 함께 고려인들이 다수 정착한 최초 도시인 우슈토베에서 고려인 벼농사의 성과를 보여주는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달리보스톡(극동) 집단농장 농장장 신형문’에 대한 영상물은 달리보스톡 집단농장의 탈곡시설, 도정공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부지역에서 밀농사에도 종사하는 고려인의 모습도 영상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¹³⁾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농업종사 고려인에 대한 영상물 감소 현상은 당시 소련이 처했던 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새로운 소련지도자가 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시기의 산물로부터 철거한 탈피를 시도하였다. 농업 및 경제 발전의 부각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주도하에 카작스탄 북부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진행된 밀 농사지역 확대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처녀지 개간운동’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소련사회에서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된 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유럽러시아에 거주하던 러시아계 민족들이다. 이들은 당의 파견 또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대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지대 확대의 성격을 지닌 ‘처녀지 개간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또 다른 부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강제이주로 인해 거주지 제한을 받고 있던 독일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민족 집단이다. 이들은 스탈린 사후 거주지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시베리아 오지의 강제이주 지역을 떠나 처녀지개간운동으로 농업 인력의 수요가 대거 필요했던 카작스탄 북부로 이주하였다.

소련정부 및 카작공화국 당국은 농업생산의 확대 측면에서 이러한 집단들의 농업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전역에서 이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카작공화국(카작필름)의 선전영상물 제작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이미 성공한 고려인의 벼농사 성과를 보여주는 영상물 제작편수의 감소로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이러한 운동이 벌어졌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을 담은 영상물이 제작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벼농사가 아닌 밀농사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이 그 대상이었다.

13)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1950년대 쿠스타나이주의 고려인 노동영웅이었던 박알렉산드르 알렉산드르비치에 대한 영상물로 1952년과 1957년 두 차례 영상물 기록이 남아 있다.

2. 비농업분야

1937년 중앙아시아로는 약 18만 명의 고려인이 강제이주를 당하였는데,¹⁴⁾ 이러한 강제이주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카작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1959년 소련인구 센서스의 결과에 따르면 고려인의 숫자는 당시 우즈베크는 약 13만9천여 명으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카작스탄은 7만4천여 명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¹⁵⁾

카작스탄 고려인의 초기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크게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강제이주 직후 여러 요인으로 인한 1937~38년 유아세대의 높은 사망률, 둘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동군으로 고려인 젊은이들이 많이 복무하게 되면서 나타난 희생으로 인한 젊은 남성 고려인들의 감소,¹⁶⁾ 셋째 1950년대 중반 많은 고려인 젊은이들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및 유럽러시아의 공업중심 도시로 유학 및 이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다른 지역 이주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흐루시초프 집권 이후 회복된 거주이전의 자유, 강제이주 1세대의 기성세대들이 강제이주 이후 비농사를 중심으로 이룩한 경제적인 기반 확립을 들 수 있다.

14) 카작스탄에 98,454명(20,789가구)이 강제 이주되었으며, 우즈베크으로는 74,500명(16,307가구)이 강제이주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람. 카작스탄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책에 수록된 1938년 2월 문서를 참조 Тлеу Кульбаев, Аркадий Хегай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б устройстве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депортация*, Алматы, Данекер, 2000, с. 63.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대해서는 박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 「재소한인의 강제이주약사,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 논총』(탐구당, 1992), 1271 쪽

15) 이후 카작 고려인의 숫자는 1970년에는 81,598명, 1979년에는 91,984명으로 증가하였고, 1989년에는 100,739명, 1999년에는 강제이주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99,665명이었다. Ким Г. Н.,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Наука, 1989, с.24; Пак А. Д.,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02, с.7.

16) 고려인들은 전선으로 투입되지 않고, 후방의 탄광, 목재소, 도로건설, 개간사업, 군수물자 공장 등 전선의 생산현장에 노동인력으로 투입되어, 산업생산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명손실이 많이 발생하였다. 김승화(저)/정태수(역), 앞의 책, 232~236 쪽. 김표트르, 「우즈베크 공화국 한인의 사회정치적 위상,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탐구당, 1992), 1293~1294 쪽

젊은 세대들의 이주 성향 역시 우즈베키스탄과 카작스탄 간에 상이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우즈베크에서는 주로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로 유학차 이주한 경우가 많으며,¹⁷⁾ 카작에서는 유럽러시아의 공업중심도시(키예프나 하리코프 등) 및 카작과 인접한 시베리아의 공업도시들로 이주한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이주의 결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권 소련지역에서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제이주 당시 어린이에 불과했거나 강제이주 직후 태어난 세대들이 김만삼, 채정학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세대의 경제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나 전문직 진출을 위해 농촌에서 수도인 타슈켄트와 알마티, 러시아의 주요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소련 전역에서 고려인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나타났고, 러시아에서 현재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전문인 중심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¹⁸⁾ 좋은 농업환경을 찾기 위해 러시아남부나 러시아 북카프카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으로의 농업이주도 시작되었다. 또한 강제이주 당시에도 농촌과 도시 거주민의 비율에 있어서는 농업중심의 남부지역과 공업중심의 북부지역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¹⁹⁾

-
- 17)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크 출신 고려인과 그 자녀세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바람 방일립 「상트 페테르부르크 고려인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13집(2000).
- 18) 이러한 러시아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 바람. 위의 논문 임영상·김상철, 「중앙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문화변화」, 『국제지역연구』, 제4권 4호(2000); 황영삼, 「모스크바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13집(2000).
- 19) 카작스탄은 남부와 북부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강제이주 당시 남부로 이주된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촌지역 거주민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카라간다와 쿠스타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은 대부분이 공업중심 지역으로, 강제이주민 역시 공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1959년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탄광 및 공업시설이 많았던 카라간다주 지역은 도시거주민이 10,978명, 농촌 거주민이 1,056 명으로 도시거주민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반면 알마티주 당시에는 딸뻘쿠르간주가 포함되어 있었음)는 도시거주민의 비율이 6,180명, 농촌 거주민이 14,321명이었다. 침켄트주의 경우에도 도시거주민은 2,189명인 반면, 농촌거주민은 6,539명이었다. 반면 크즐오르다주는 도시거주민 9,235명, 농촌거주민 5,065명, 잠불주는 도시거주민 3,331명, 농촌거주민 2,152 명이었지만 이 지역의 도시들은 농업 중심도시들임을 고려한다면, 남부지역에 속하는 이들 지역 역시 농촌거주자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Kim G. H.(1989), *указ. соч.*, с.18-20.

<표 2> 전문직 종사 고려인 관련 영상물 목록

제작년도	대상지	내 용	특 징
1939	카작스탄 알마티	새학기가 시작되다, '알마티주 중등학교 우수 교원 이 E'	고려인 러시아어 교원
1959	카작스탄 탈디쿠르간	이운호-탈디쿠르간 카라탈강 도강선의 선장	우슈토베 인근 하천 도항선 운항 고려인
1961	카작스탄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운항 우즈벡-카작간 화물선 선장 이도하	환경파괴 이전의 아랄해 풍경
1961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제8차 최고소비에트에 참석	국가경제관련 보고
1963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제10차 최고소비에트에 참석	국가경제관련 보고
1963	카작스탄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화물선, 부타코프호 선장 이도하	아랄해 모습
1964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제11차 최고소비에트에 참석	국가경제관련 보고
1964	카작스탄 알마티	지질탐사 엔지니어 최아급 P.	최아급 활동상황
1964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1964년 최고소비에트회의에 참석	1965년도 국가예산보고
1965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1965년 최고소비에트회의에 참석	1966년도 국가예산보고
1966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제6기최고회의 9차회의에 참석	국가경제관련 보고
1967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1967년 최고소비에트회의에 참석	1968년도 국가예산보고
1967	카작스탄 알마티주	체르다라 건설사업소 소장 조게르만	건설사업소와 조게르만의 활동
1968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1968년 최고소비에트회의에 참석	1969년도 국가예산보고
1970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제7기 최고회의 관련 연설	제7기최고회의 국가경제 활동보고
1970	카작스탄 알마티	김일리아 루키치 카작재무장관 제24차 최고소비에트회의 참석	경제관련 보고
1971	카작스탄 알마티	카작공화국 재무부 장관 김일리아 루키치 국가 예산에 대해 연설	국가경제 보고
1973	카작스탄 알마티	카작공화국 재무부 장관 김일리아 루키치 제8기 최고회의 4차회의참석	국가경제보고
1974	카작스탄 알마티	카작공화국 재무부 장관 김일리아 루키치 제8기 최고회의 6차회의참석	국가경제보고

이와 같은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변화추세가 영상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기부터 특히 전문직으로 진출하여 성공한 고려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산업계, 문화 예술 분야 및 체육 분야의 인물들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집단농장과 관련된 영상물에서도 농사자체의 성과보다는 집단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고려인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고려인과 관련되어 최초로 제작된 영상물은 1939년에 제작된 ‘알마티주 중등학교 우수교원 이 E’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당시 알마티의 중등교육기관에서 러시아어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고려인 전문직업인을 소개하는 영상물은 1960년대 이후 보편화되었다. 전문직으로 진출한 고려인으로 가장 빈번히 영상물에 비취진 경우는 1961년부터 1974년까지 카작스탄 공화국 재무부장관 지낸 김일리아 루키치이다. 이외에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제조에서 소련대표로 나온 김넬리에 대한 영상물도 2회 제작되었다.

1961년에는 벼농사 이외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이 소개된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항해, 우즈베크 카작간 화물선 선장 이도하 편에서는 현재는 사해가 되다시피 한 아랄해의 1960년대 모습과 함께 아랄해를 항해하는 화물선 선장 이도하의 모습이 소개되었으며, 이도하에 대한 영상물은 1963년에 한 차례 더 제작되었다. 또한 1961년에는 ‘카작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회의 편 영상물을 통해 당시 카작공화국 재무부장관인 김일리아 루키치의 연설 모습과 발언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김일리아 루키치는 이후 그가 재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1974년까지 거의 매년 영상물에 등장하고 있다²⁰⁾

1964년에는 전문인력 고려인으로 엔지니어인 최아굽 P. 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이 영상물에서는 지질탐사 장비 제작 등 공업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아울러 같은 해에는 고려민족극장 배우로 당시 데뷔 30년을 맞이한 카작공화국 인민배우 김진의 ‘데뷔 30주년 축하’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이 필름에는 연해주 고려민족극장에서 배우로 데뷔하여 강제

20) 현재 카작스탄 고려인협회는 매년 고려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작고한 유명 고려인 학자 및 엔지니어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연계 전공 학생들에게는 유명한 고려인 수학자인 ‘김영환 장학금’을 인문사회계 전공 학생에게는 경제학자이면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일리아 루키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주를 직접 경험하고, 한국어를 100% 구사한 작가, 연출가 겸 배우인 김진의 모습이 남아있다.

<표 3> 스포츠 분야 고려인 및 북한과의 교류활동 영상물 목록

제작년도	대상지	내 용	특 징
1958	카작스탄 알마티	알마티 국제빙상경기에서 우승한 카작스탄 대표 고려사람(韓人) 스케이트 선수 고경희	북한선수단의 경기모습도 나옴
1958	카작스탄 비쉬케크	북한배구 남녀대표팀과 카작 배구 남녀대표팀이 키르기스스탄에서 경기	전소련체육대회 경기
1959	카작스탄 알마티	북한 평양축구팀과 카작스탄 알마티 카이랏트 축구클럽팀이 알마티에서 경기	1950년대 말 알마티 종합운동장 모습
1959	카작스탄 카라간다	김김 N.이 카라간다에서 열린 전카작스탄 복싱경기대회에 참가	
1965	카작스탄 켄타우	다이빙 선수 고려인 ‘켄타우 수영대회 우승자 차 M.’	카작스탄 전국 다이빙대회
1973	카작스탄 알마티	카작스탄 카이랏트 축구팀과 북한 압록강 축구팀간의 축구경기	1970년대 초 알마티 종합운동장 모습
1975	카작스탄 알마티	체조선수 벨리김 특집	소련체조 챔피언 벨리 김의 체조 훈련 과정
1976	카작스탄 알마티	벨리김 등 올림픽 참가 카작공화국 대표선수들 카작공화국 쿠나예프 서기장과 만남	몬트리올 올림픽 참가 카작출신 메달리스트
1984	카작스탄 알마티	채유리(현카작고려인협회회장)-소련 복싱 공훈 트레이너	카작스탄 복싱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
1992	카작스탄 알마티	태권도: 종교로 가는 길 (원제: 사원으로 가는 길, 태권도)	1990년대 초반 알마티 모습 소개, 태권도 소개 필름, 현 카작태권도협회 회장이 태권도를 소개하는 기록물

1965년에는 수영선수로 활약한 고려인을 찍은 ‘켄타우-수영대회 우승자 최 M.’편이 있다. 이는 카작스탄 남부 켄타우에서 열린 카작공화국 수영대회(다이빙)와 대회 우승자들을 소개한 영상물이다. 이외에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소련체조 선수로 출전한 ‘김벨리’, 1984년에 제작된 소련 복싱국가대표 공훈 트레이너

‘최유리’ 등이 카작스탄의 운동관련 영상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고려인들이다
1977년에는 ‘고려(韓人)극장 성악가 김블라지미르 독창회 가 제작되었다

1990년에는 당시 개별민족의 민족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스탈린의 강제이주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고려인 감독에 의해 제작된 것이 강제이주민족 탄압기(1938~1948) 카라간다주 ‘돌린카’마을(원제는 ‘돌린카(마을)의 운명’)로 최 E. P. 의 회상기(4 회분) 이다 강제이주 직후인 1938~48년 사이에 카작스탄 중부 탄광도시 카라간다의 돌린카 마을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비참한 초기 정착생활을 회상한 인터뷰 기록이다.

<표 4> 기타분야 고려인 관련 영상물

제작년도	대상지	내 용	특 징
1990	카작스탄 탈디코르간(우슈토베)	최필무의 가족: 1937년 강제이주된 사회주의 노동영웅 최필무의 가족 및 우슈토베 고려인 사회.	1990년대 우슈토베 풍경 수로 등 990년대 고려인 사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음. 크즐오르다 홍범도 묘지에서의 제사 등
1990	카작스탄 알마티/카라간다	돌린카 마을의 운명-1 강제이주민족탄압기(1938~1948) 카라간다주 ‘돌린카 마을	강제이주민족 탄압시기의 기억
1990	카작스탄 알마티/카라간다	돌린카 마을의 운명-2 강제이주민족탄압기(1938~1948) 카라간다주 ‘돌린카 마을	현재의 돌린카마을 모습과 추모비
2002	카작스탄 알마티 민영 라하트 TV	카작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유리 추모 영상물	원본은 민영 방송을 통해 카작전역에 방송됨
2003	카작스탄 알마티 민영 31 채널 TV	카작스탄의 100민족 고려인 윤세르게이 그리고리에비치	현재 생존해있는 우슈토베 출신 농업 노동영웅 윤세르게이의 삶과 가정, 고려인 문화 소개

1960년대 이후 영상물들에서는 소련 전체사회나 카작공화국 내에서 공헌한 개인을 부각시키는 필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카작스탄에서 고려인은 영상물을 통해 초기에는 ‘농업전문가’의 이미지로,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전문 직업인’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작스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농업전문가 이미지로 다루어지던 1940~60년대 보다는 고려인 관련 영상물의 비중

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로 고려인의 진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고려인만 영상물에 기록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고려인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방영된 영상물에서는 카작스탄 독립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고려인을 다루었다. 대표적인 영상물로는 2000년에 사망한 카작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유리’에 대한 것으로 2002년 가을 라하트TV가 제작한 ‘카작스탄 초대헌법재판소장 김유리’ 추모 프로와 2003년 봄에 31 채널TV가 제작방송하고 있는 ‘카작스탄의 100 민족’이라는 프로에서 방영된 ‘고려인편: 고려인문화와 윤세르게이 그리고리에비차 편이 있다²¹⁾

III. 주요 민족문화기관들의 활동

1. 고려극장의 변천사와 관련공연영상물

고려극장은 1920년대 말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고려인 공연대들을 중심으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 블라디보스톡시 담배공장 공연대, 신한촌 클럽 공연대, 블라디보스톡시 제8호 중등학교 공연대, 푸칠로프카 마을 청년농업학교 공연대, 기술교육대 공연대 등은 1920년대부터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고려인 공연대들이었다. 이들은 1920년대 말을 거치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려인 청년노동자 공연대를 중심으로 고려인 민족극장을 형성하게 된다. 당시 고려인극장은 블라디보스톡 제8호 중등학교 공연대에서 연출을 맡고 있었던 연성용,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이후 선봉을 이어받아 복간된 레닌기치의 제1대 편집장을 맡게 되는 엄사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미 연출가 및 배우로 활약하고 있었던 태장춘, 채영, 김진, 김호남, 이길수, 이함덕 등 예술인 3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이 시작된 고려인극장은 전통적인 고전극만이 아니라 창작희극을 공연하였다. 따라서 1929년 설립 이후 독창적인 희극들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작품의 시나

21)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작된 이 영상물들은 카작 국립 영상물 및 사진 기록물 보존소로는 이관되지 않은 상태이며, 고려말TV 방송을 통해 입수할 수 있었다.

리오들은 현재도 고려극장 서고에서 접할 수 있다.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에 따라 카작스탄 크즐오르다로 옮겨온 고려극장은 1942년 그 근거지가 우슈토베로 이동되었다. 이 기간 중에는 1939년에 고려인 콜호즈에 관한 창작극인 ‘행복한 사람들’(태장춘 극본)이 공연되었다. 고려극장에서는 각종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고전극과 창작연극이 무대에 올려졌다.

1942년에 고려극장은 우슈토베로 근거지가 이동되었고, 카작스탄에서는 처음으로 채영이 연출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콜호즈 생활을 주제로 한 ‘즐거운 생활(1949)’이 무대에 올랐다. 한반도 발전의 문제를 다룬 태장춘의 ‘38선 남쪽에서(1950)’와 연성용의 ‘불타는 조선(1952)’도 창작극으로 공연되었다.

1959년 5월 30일 고려극장의 소재지는 우슈토베에서 다시 크즐오르다로 이전되어, ‘크즐오르다 주립 음악연극고려극장’으로 개칭되었다. 1962년 3월 22일 ‘크즐오르다 주립음악 연극극장’은 소련 전체 고려인을 대상으로 할 목적으로 ‘고려음악연극극장’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1964년 1월 1일부터 극장은 주립에서 국립으로 격상되었다. 1968년 극장은 알마티로 이전하였고 ‘카자흐스탄 국립고려음악연극극장’으로 개명되었다. 이후 극장은 음악회극극장이 되었으며 위구르민족극장과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1997년 알마티 한국교육원내로 이전하였다가, 2002년 가을극장 창립80주년을 맞이하여 단독 극장 건물을 보유하게 되었다.

고려극장과 관련된 영상물은 1946년에 최초로 나타난다. 크즐오르다주 이방가르드 집단농장 특집편 후반부에 당시 우슈토베에 소재했던 고려극장의 순회공연이 소개되고 있다. 이합덕, 이니콜라이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이 소개되고 있고, 끝부분에서는 스탈린 중심의 소련체제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한국어 노래 독창이 나온다. 이후 1964년에는 연해주 고려극장시절에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김진의 데뷔 30주년 축하 영상물이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1960년대 고려극장의 연극 공연 모습이 잘 나타난다.

1968년 알마티로 이전한 고려극장은 연극 및 음악을 주축으로 그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강제이주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손게오르기, 김블라지미르, 이벤야민, 김조야, 문공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현재도 고려극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영상물들이 1970년대에 제작되었다.

<표 5> 고려인 및 한민족 관련 문화활동 관련 영상물 목록

제작년도	대상지	내 용	특 징
1954	카작스탄 알마티	북한작가 대표단의 알마티 방문 및 카작 작가동맹과의 교류	당시 북한의 대표문인들이 방문
1955	카작스탄 알마티	북한 예술단의 알마티 방문 당시 북한 문화선전성 차관이었던 소련파(고려인) 정상진 정률 선생이 대표단 단장으로 방문	당시 북한의 신예 문화관련 인사들의 공연모습
1964	카작스탄 크즐오르다	김진 - 카작공화국 국립 고려극장 인민배우 데뷔 30주년	국립고려극장 소속 중견배우 김진의 데뷔 30주년 축하 영상물로 고려극장이 크즐오르다에 위치하던 시기의 활동상이 보임
1970	카작스탄 알마티	아리랑 앙상블 공연실황. 고려극장 소속 가수들의 독창 및 무용	크즐오르다 소재 고려극장의 알마티 공연
1973	카작스탄 알마티	고려극장 공연실황. 고려극장 무용단의 전통무용 및 독창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같이 설명
1973	카작스탄 알마티	아리랑 앙상블 공연 실황	고려극장 성악부와 전통무용부 예술가들의 공연실황
1974	카작스탄 알마티	고려극장 소개(러시아어제목 만남의 열망/카작어 제목: 무대를 통한 만남) 양반전, 심청전 등 한국 전통 고전 및 현대극, 카작연극 등 각종 공연/주요 배우 및 연출가 소개, 전통무용 공연 소개	연극분야, 무용분야, 성악분야로 나누어 가장 포괄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당시 고려극장 공연 포스터가 보이고 있음. 감독 및 촬영은 북한출신 영화감독인 양원식이 담당하였음. 원판은 러시아어로 제작되었지만 현재 카작어로 더빙이 되었음.
1977	카작스탄 알마티	고려(韓人)극장 성악가 '김블라지미르 독창회' 고려말 성악 카작 노래	현재도 고려극장 소속 성악가로 활동 중인 김블라지미르의 청년기 공연 모습
1978	카작스탄 알마티	아리랑 앙상블 1978년 공연 실황	고려극장 성악 및 무용부 예술가들의 공연실황이며, 고려극장과 관련하여 칼라로 제작된 필름

이들은 고려극장의 음악 앙상블인 '아리랑'의 주요 구성원으로 그 활동은 더욱 더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제작된 고려극장 관련 영상물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악공연에 대한 영상물들이 자주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악 및 무용팀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랑 앙상블의 공연을 소개하는 영상물이 1970년, 1973년, 1978년에 제작되었고, 1977년에는 고려극장 소속 성악가인 김블

라지미르의 한국어, 카작어 노래 및 정통 성악곡 텔레비전 공연 실황이 제작되기도 했다.

고려극장 소속 연극팀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영상물은 1974년 ‘만남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다. 고려극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이 영상물은 원래 러시아어로 제작되었으나, 카작스탄의 독립 이후 원래의 영상물이 카작어로 재더빙된 상태이다. 이 영상물에서는 특히 고려극장 연극팀의 주요 공연작품, 주요배우, 연출진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으며, 공연작품으로 한국의 전통 작품인 양반전과 심청전이 소개되고 있다. 양반전은 지난 2002년 고려극장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재각색되어 고려극장 설립 7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려극장을 소개하거나 고려극장 소속 예술가들의 공연을 보여주는 영상물은 별도로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고려말TV가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방송프로인 ‘고려사람’을 통해서 고려극장의 공연이 빈번히 영상물로 제작 및 소개되었다. 아울러 고려극장 설립 70주년인 2002년에는 고려말TV가 설립 70주년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카작스탄과 북한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영상물들도 몇 편 발견되었다. 북한에서 국가설립 초기 이른바 ‘소련파’로 불리면서 고려인들이 활동하던 시기인 1950년대에 이루어진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영상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1955년도에는 북한 문화사절단이 모스크바, 알마티, 타쉬켄트를 순회 방문하였다. 이 문화사절단의 단장으로는 현재 카작스탄에 생존해있으며 당시 소련파로 북한 문화선전 부상(차관)이었던 정상진(정률) 선생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1950년대 중반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으며, 1950년대 초반 북한 문화선전상(장관) 허정숙의 주도로 만들어진 북한 곡예단의 공연모습 역시 잘 나타나고 있다.

2. 고려인 언론기관들의 활동과 변천사: 레닌기치, 고려말라디오 및 고려말TV

1) 레닌기치(고려일보)의 변천사와 활동

강제이주 이전의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는 언론으로 7개의 신문, 6개의 잡지가

발행되었다. 이들 언론사들은 1937년 ‘선봉’만을 남기고 모두 폐간되었으며 선봉 역시 강제이주 직전까지 발행되다가 1937년 9월 12일 1644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지되었다. 선봉 신문사의 편집위원 가운데 강제이주 과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농업부장 황동훈은 신문 발행의 재개를 우즈베키스탄 공산당에 제안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반면 강제 이주 전 선봉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엄사일은 카작스탄 공산당에 신문사 재건을 제안하였고, 1938년 5월 15일 크즐오르다 시르다리아 구역신문의 지위로 ‘레닌의기치’로 제호가 변경되어 다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 이후에는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에 따른 전시 상황으로 인해 복간 당시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주 3회 발행되던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2면 주 3회 발행체제로 전환하였다. 1942년 5월 10일에는 8면 특집호 발행(외무인민위원 몰로토프 특집판)이 발행되었고, 1954년에는 A2판 4면 주 5회 발행체제로 전환 제호를 ‘레닌의기치’에서 ‘레닌기치’로 변경하여 공화국 신문으로 발행(1월3일부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레닌기치는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도시인 타슈켄트, 알마티, 사마르칸드, 두산베에 지사가 설치되거나 특파원이 파견되는 등, 신문사 정원 60명으로 소련 고려인 사회를 커버하고 있었다. 레닌기치는 당시 소련 고려인들의 문화, 언어의 보존 및 원천으로써 큰 역할을 하였으며, 민족을 단합시킬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인 국가 및 행정단위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고려인들을 결속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1961년부터는 소련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화국간 신문으로 격상되었고, 1978년에는 크즐오르다에서 알마티로 신문사를 이동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북한의 언론, 교육, 과학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과 사할린 출신과 북한 출신들이 주로 신문사에 근무하였다.²²⁾

소련체제가 붕괴된 1991년에는 레닌기치를 고려일보로 개칭, 국영신문에서 민

22) 당시 레닌기치는 기자 채용시 러시아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2003년까지 고려일보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한글판 발행을 전담하였던 김성조 편집장도 1980년대 초반 레닌기치 입사시험에서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입사할 수 없었다. 이후 김성조 편집장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기자들이 대거 통역으로 빠져나간 1990년대 초반에 와서야 신문사에 입사하여 2003년까지 한글판 신문 발행에 종사해왔다. 레닌기치는 소련체제하에서 어설픈 한국어가 아닌, 문법적으로 완벽한 한국어를 자유로이 읽고, 한국어 문예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었다.

간신문, 자유신문으로 전환하여 한글판 주 3 회 발행, 노어판 주 1 회, 총 주 4 회 발행하였다. 1992년 하반기부터는 한글판 1 부, 노어판 1 부를 동시에 주 1 회 발행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00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에 운영권이 5 년간 위임되었다.

1980년대 초반 최전성기에는 발행부수가 30,000 부까지 확대되었으나 1993 년 말에는 발행부수가 400부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한글 독자의 감소, 독립국가연합 내 공동우편망 붕괴, 경제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1994 년 말 발행부수를 4,500부로 확대하였고 러시아어판 중심의 신문발행체제로 전환하였다 2002년 말 발행부수 3,000부(주 1 회 러시아어판 8 면, 한글판 4 면)에 달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유료 발행부수는 1,700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레닌기치와 고려일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1946 년 아방가르드 집단농장 특집편에서 노년층 고려인들이 레닌기치를 읽고 있는 모습이 잠시 보인다. 고려인 신문매체에 대한 영상물은 고려말TV 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1990년대에 와서 고려말TV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고려일보의 사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였던 양원식 선생과 고려일보에 대한 영상물은 일본 NHK가 1998년 제작한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다큐멘터리, 2000년 KBS의 한민족 리포트로 제작된 바 있다

2) 고려인 방송기관: 고려말라디오와 고려말TV

고려인의 방송매체로는 고려말라디오와 고려말 TV가 있는데, 고려말TV는 한국과의 교류가 본격화된 1990년대에 방송이 시작되어 그 존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반면 고려말라디오는 강제 이주이전의 연해주에서부터 이미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말라디오방송도 1937년 강제이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강제이주 경험세대들의 회상에 따르면 연해주에는 고려인 학교, 신문, 잡지사 외에 지역단위 소규모 라디오 방송도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민족 지식인의 탄압으로 많은 라디오 종사 언론인이 희생되었고, 라디오 방송 역시 1937년 강제이주를 계기로 중단되었다 강제이주 직후 카작스탄에서 고려극장 및 신문사는 연해주에서의 활동 역사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으로 그 기능이 신속히 재개되었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강제이주 이전에 이미 대부분 희생된 라디오 방송은 195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크즐오르다시에서 방송이 재개되었다. 1938년부터 크즐오르다에서 발행된 레닌기치와 고려극장의 존재는 고려말라디오의 재개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한국어신문을 발행하는 레닌기치 신문사 기자들이 고려말라디오에서 겸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방송 인력이 확보될 수 있었고, 고려극장의 배우들도 고려말라디오방송에 적극 관여하였다.

이러한 인력들 가운데 전철송, 이길수, 김원봉, 주동일, 오숙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가운데 고려극장의 배우이며 연출가인 이길수는 고려극장 관련인사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말라디오에 관여하여 1972~1978년에는 방송국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자신의 연출가적인 재능을 활용하여 라디오방송극 ‘아리의 원한,’ ‘여성들에게 드리는 축배’ 등을 직접 집필·연출하였다. 레닌기치 신문사쪽 인력으로는 김국천, 전철송, 김원봉, 주동일 등이 라디오 방송국 설립과 활동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특히 오숙희, 주동일은 오랜 기간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였다. 방송내용에는 고려극장 배우들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방송내용의 대부분은 당시 크즐오르다 고려인들의 생활, 고려극장 배우들의 출연으로 채워졌고, 당시 고려극장의 유명한 배우들인 이함덕, 김진, 박춘섭, 박에카테리나, 최봉도 등이 자주 방송에 출연하였다.

당시 크즐오르다시는 레닌기치와 고려극장이 위치해 있었고, 카작스탄에서 벼농사의 중심지로 김만삼, 채정학과 같은 유명한 고려인 농업지도자들이 있었다. 당시 고려말라디오는 크즐오르다 고려인 사회가 벼농사로 명성을 높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2명의 위인을 소개한 바 있는데, 아방가르드 농장장을 역임했던 김만삼과 그를 도운 카작인 이바르유 자하예브이로 이들에 대한 영상은 1946년 제작된 아방가르드 농장 특집편에도 잘 소개되어 있다. 이들 외에도 카작스탄에서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고려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크즐오르다에 있었으며 이들은 고려인들에게 모범이었고 자랑이었다.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에서는 김만삼 외에 김만삼의 아들로 농장장을 역임했던 김홍빈 등 16명에 달하는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 고려인들이 있었고, 채정학을 농장장으로 하는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도 고려인 노력영웅들이 다수 배출된 곳으로 유명하였다. 이러한 크

즐오르다 고려인 사회의 고양된 분위기는 고려말라디오와 신문사의 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카작스탄과 북한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에서 들어온 방송자료들과 노래들이 방송편집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56년부터 최초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중앙국영라디오방송국은 음악테이프 및 한국어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지원은 1989년까지 지속되었다.²³⁾

1979년 크즐오르다 고려말라디오는 재정문제와 종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방송을 중단하게 된다. 1968년 고려극장이, 1978년 레닌기치 신문사가 각각 그 근거지를 알마티로 옮기게 되었으며, 특히 레닌기치의 알마티 이동은 크즐오르다 고려말라디오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었다. 레닌기치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라디오 방송에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닌기치의 알마티 이동은 고려말라디오 방송 인력의 유출을 의미했다. 또한 당시 고려인 사회는 고등교육 및 전문직에 진출하기 위해 러시아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언어적인 러시아화가 가속화되었다.²⁴⁾

레닌기치의 알마티 이전으로 방송이 중단된 크즐오르다 고려말라디오 방송을 대신하여 카작스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고려인라디오 방송국 설립 문제가 1980년대 초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에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고려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었지만, 우수토베, 크즐오르다, 침켄트 및 잠불 등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 할 수 있는 고려인들이 여전히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도 카작스탄 전국 단위 고려말라디오 방송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었다.

23) 당시 북한과 교류를 다룬 영상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알마티를 방문한 북한 작가들(1954), 알마티 아바이명칭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북한음악가들의 연주회(1955), 알마티에서 열린 북한 및 소련 문화 및 예술계 종사자들의 만남(1955), 프룬제(비쉬켄)에서 만난 카작스탄과 북한 농구 선수들(1958), 알마티에서 열린 평양 및 알마티 축구팀의 만남(1959).

24) 고려인의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러시아화는 다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970년 카작에는 101,369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66.8% 한국어를 모국어로, 33%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이 1979년에는 전체 97,649명 가운데 45.2%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한다는 비율은 54.6%였다. 1989년에는 107,051명 가운데 36.5%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63.1%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간주한다고 대답하였다. Пак Б. Д. Бугай Н. Ф., указ. соч., с.319.

이러한 상황에서 크즐오르다 시절부터 고려말라디오에서 활동하였고, 2004년 현재 고려일보 주필인 최영근은 1982년 최초로 카작공산당 선전선동부에 고려말라디오 설립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는 크즐오르다 고려말라디오에서 활동을 했던 언론인이자 작가였다. 1983년에는 일제말기 독립운동의 유공자인 황운정, 생물학 박사이며, 초대 고려인문화민족협회 회장을 역임한 황미하일 B., 레닌기치 주필을 역임한 고려인 원로 언론인 김국천 등 고려인 사회 원로들 역시 고려말라디오의 설립을 요청하는 서한을 다시 발송하였다. 이후 황운정은 카작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인 쿠나예프를 만나 고려말라디오 방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1984년 3월 쿠나예프는 카작공산당 전원회의에서 고려말라디오의 개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후 카작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청취권으로 하는 카작스탄 고려말라디오방송은 주 2회 30분 방송으로 1984년 5월 16일 시작되었다.

초대 방송국장으로는 크즐오르다 시절부터 고려말라디오에 종사해온 최영근이 임명되었고, 라디오 언론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아나운서 김옥려 등의 고려말라디오 전담인력들로 구성되었다. 전국 차원의 한국어 라디오가 설립됨에 따라 당시 카작스탄 방송 인력의 산실이었던 카작국립대 방송신문학부 라디오방송학과에는 한국어라디오 전공이 만들어졌다. 이후 카작스탄에서 대학차원의 한국어 강좌는 1988년 카작국립대 신문학부 한국어라디오 전공에 최초로 개설되었고, 당시 신문학부 한국어라디오 전공 졸업생들은 현재도 대부분 한국어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다.

고려말라디오가 개국되던 시기에 이미 소수민족 라디오 방송으로는 독일인 라디오와 위구르 라디오가 방송을 하고 있었지만,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언어를 아는 당 검열위원회 인사들이 철저한 검열을 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편이었다. 그러나 고려말라디오에는 이러한 검열이 없었다. 따라서 전적으로 방송국장의 책임 하에 상대적인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었다. 또한 당 검열위원회에 고려말을 검열 할 인력이 없었던 점도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고려말라디오 방송은 초기에는 고려인관련 소식 전달의 기능을 하였지만, 일상 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청취자들에게 모국어 학습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알마티에서 고려말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실시된 청취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취자의 다수를 30대 이상이 차지하

고 있는데,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강제이주 경험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거주이전 제한이 이루어지던 1950년대까지의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었다 그리고 이는 196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의 급격한 한국어 상실정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²⁵⁾

알마티에서 재개된 고려말라디오는 카작스탄으로의 강제이주 초기 고려인 사회의 유력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주의 노력영웅들인 채정학, 이콘스탄친, 최필무, 이용범 등이 고려말방송에 출연하였으며, 현역 고려극장 배우뿐만 아니라 크즐오르다 시절에 적극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참여했던 은퇴배우들까지도 고려말라디오 방송에 적극 출연하여 방송내용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다. 특히 이함덕, 이길수, 박춘섭, 최봉도, 박소피아, 김블라지미르, 문알렉스 등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학자로는 고박일 선생은 당시 고려인들에게 잊혀지고 있었던 모국어의 특성에 대한 방송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고려말라디오는 이동휘, 최재형, 홍범도, 계봉우, 김알렉산드라 등 강제이주 이전 고려인 사회의 위인에 대한 특별 방송을 통해 고려인들이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고려인으로 얼마 되지 않는 제2차 대전 참전 소련영웅인 민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에 대한 방송 역시 고려인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²⁶⁾

- 고려사람(현재명 우리민족)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고려사람’은 1991년 2월 4일 처음으로 방송이 이루어

25) 세부항목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글을 참고 바람. Сен Ирина Кисобовна, “Роль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процессе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и возр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дипломная работа казах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2000.* с.14~16.

26) 제2차 대전에 군인으로 참전한 고려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민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외에도 한세르게이 알렉산드르비치, 최니콜라이 멘수프로비치, 김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이발렌치나 니콜라예브나, 강빅토르 세르게이비치, 유가이 표트르 세르게예비치, 정인덕, 박인노겐치, 황동국, 기가이 니콜라이(기태이) 등이 있다. 이들은 강제이주 시절에서 소련군에 복무중이거나 유럽러시아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이주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정상적인 참전이 가능하였다. Пак Б. Д. Бугай Н. Ф., *указ. соч., с.293~311.*

어졌다.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카작스탄 고려인에 대한 방송을 보내다가 방영 시간은 주 1회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매주 1 회 20 분씩 카작스탄 국영방송을 통해 카작스탄 전역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²⁷⁾

‘고려사람’의 프로그램은 카작스탄 고려인문화 생활에서 주요사건과 한반도의 정치, 경제, 소식을 방영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관련 뉴스, 단편주제영화, 고려인 유력인사 인터뷰, 카작스탄을 방문한 한국 인사 등을 소개하며, 고려극장의 공연, 고려인모임과 회의, 축제, 명절의식 등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고려사람 제작진이 제작한 흥미로운 영상물로는 1996년 특집으로 제작된 ‘한국어 하는 우수토베의 다른 민족’ 등이 있다. 이 영상물은 고려인 가운데 대표적인 방송연출자 겸 영화감독인 송라브렌찌가 1996년 ‘고려사람’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이 최초 정착한 이주지 가운데 하나인 우수토베에 거주하는 타민족들이 고려말을 구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려사람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현재 방송 자료는 1996년도 분부터 보관되어 있고, 그 이전 자료들은 남아있지 않다. 이외에도 2002년에는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카작스탄 국립 고려극장 특집편을 제작하여 고려극장의 역사를 영상으로 전달하였다.

IV. 결론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주년에서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이주는 현재의 러시아

27) 1991년부터 프로를 제작하고 있는 프로듀서 최엘라 고토바는 2003년 1월 21일 인터뷰에서 ‘1991년 당시의 개별민족협회 설립, 개별민족 문화자치라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방송이 허용되었는데, 카작정부가 내건 조건은 1 회라도 결방이 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002년 10월에는 프로그램 명칭 ‘고려사람’이 카작정부의 지시로 ‘우리민족’으로 바뀌었다. 독일민족 프로그램 명칭인 ‘GUTEN ABEND’는 ‘Blick Punkt in Kazakstan’으로 바뀌었다. 당시 고려인협회, 방송관계자들은 ‘고려사람’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소련적인 요소는 전혀 없으며, 애착을 가지고 사용한 명칭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우리민족’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야 했다. 2003년 1월 21일 최엘라 고토바 방송국장과의 인터뷰.

고려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러시아 고려인의 역사에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현지에서 이룩한 성공적인 정착의 역사는 현지의 영상물을 통해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영상물은 시대 및 주제에 따른 고려인 역사의 변화를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카작스탄 고려인에 대한 영상물은 강제이주 이후인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상물들은 대략 1940~60년 사이에는 거의 매년 주요 인물이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집단농장을 다루고 있었으며, 주로 농업과 관련된 영상물들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에는 농업분야 이외에 전문직인 엔지니어, 체육, 문화계에서 활동한 고려인들에 대한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소련체제 말기라고 할 수 있는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고려인과 관련된 영상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990년에 개별민족의 자주성이 강조되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강제이주를 직접 다룬 영상물이 제작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려인문화와 관련을 가지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방송, 신문사, 극장은 강제이주 이전의 전통을 카작스탄 땅에서 되살려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많이 알려진 신문사, 극장 이외에 고려말라디오는 강제이주를 거치면서 방송을 위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레닌기치와 고려극장 종사인력의 협조로 방송을 재개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980년대에 중앙아시아 전역을 방송권으로 하는 고려말라디오가 설립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91년부터 고려말 TV방송이 주 1회 방송됨에 따라 고려인 관련 영상물은 고려인에 의해 직접 제작되어 카작스탄 전역으로 방송되고 있다.

카작스탄 고려인의 위인 및 민족문화 관련기관의 활동은 영상물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듯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세대가 중심이었던 시기에 상호협력을 통해 최고 절정기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구사층의 감소와 현지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 세대의 증가는 고려인 사회의 전통적인 요소 약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고려말라디오와 고려극장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고려인 방송인력 및 예능인의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려일보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어판 중심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고려극장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배우의 부족으로 고려말 연극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한국어가 요구되지 않는

공연 중심으로 젊은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다. 한국어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고려말라디오 역시 월 1회는 러시아어로 방송을 하는 등 변화하는 방송 및 언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언어적인 모국어의 상실 심화와 아울러 1990년대 격변의 시기에 고려인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들이 다수 소실되었다. 특히 고려말라디오와 고려말TV의 초기 방송자료들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가 보존되지 못했고, 남아있는 방송자료들은 그 소유권이 이제 카작스탄 국영방송국으로 넘어가, 자료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과거와는 달리 방송자료의 입수에 상당한 대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으로 알려지지 못했던 한민족 현대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편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려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공개 및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철, 「카작스탄 영상 매체에서 나타난 고려인(韓人) 역사와 이미지」, 『국제지역연구』 7 권 3 호 2003.
- 김승화(저)/정태수(역), 『소련한족사』.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9.
- 김포트르, 「우즈베크 공화국 한인의 사회정치적 위상」,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서울: 탐구당, 1992.
- 박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 「재소한인의 강제이주약사」,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 논총』 서울: 탐구당, 1992.
- 방일권, 「상트 페테르부르크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3 집 2000.
- 임영삼·김상철, 「중앙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문화변화」, 『국제지역연구』 제4 권 4 호 2000.
- 황영삼, 「모스크바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3 집 2000.
- Ким, Г. Н.,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в 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Наука, 1989.
- Ким, Г.Н., Мен Д.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

хстана. Алматы: Гылым, 1995.

Корейско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хақ(과학)”.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 Алматы, 2002.

Кульбаев, Тлеу & Хегай, Аркадий.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б устройстве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депортация*. Алматы Данекер, 2000.

Пак Б. Д., Бугай Н. 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4.

Сен Ирина Кисобовна. “Роль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процессе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и возр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дипломная работа казах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2000.

ГАРФ. Ф. Р-5546. Оп. 1. Д. 57. Л. 121.

ГАРФ. Ф. Р-9401. Оп. 1. Д. 5442. Л. 85.

ГАРФ. Ф. Р-5546. Оп. 30. Д. 56. Л. 12-33.

ГАРФ. Ф. Р-5546. Оп. 29. Д. 50. Л. 104-105.

ГАРФ. Ф. Р-9401. Оп. 1. Д. 2011. Л. 252-253.

ГАРФ. Ф. Р-9479. Оп. 1. Д. 87. Л. 80.

Olcott, Martha Brill. *The Kazakhs*.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 투고일 : 2005. 1. 24.

● 심사완료일 : 2005. 5. 27.

● 주제어(keyword) : 카작스탄(Kazakhstan), 고려인(Soviet Korean), 레닌기치(Lenin Kichi), 고려일보(Koreilbo, ethnic korean newspaper), 고려극장(ethnic Korean Theater), 고려말라디오(ethnic Korean Radio), 고려말TV(ethnic Korean TV Program), 영상역사(Visual History)